

## 느헤미야의 신앙부흥운동

느헤미야 13:4-14

느헤미야는 구약시대 주전 480-430 년에 활동한 선지자이며 성서학자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 세의 총애를 받아 예루살렘 재건을 허락 받고, 포로로 끌려 간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성전으로 이끌어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그가 신앙부흥을 이룬 것을 회고하면서 쓴 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데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성령의 도우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셋째는 그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특별히 성도들의 신앙의 부흥은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과제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신앙부흥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이룬 신앙부흥운동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신앙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깨닫고 결단하여 더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샌안토니오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1. 성전의 악한 것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본문에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철저히 반대하였고 방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아십이라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소제물과 성물과 제사장에게 주는 십일조를 보관하는 방을 그에게 주어 그의 처소를 삼게 했습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악한 것이 성전에 있음을 보고 그의 세간을 모두 던져버리고 깨끗케 하여 성물과 소제물과 유향을 들여놓았습니다. (느 13:8-9)

성전에 있어야 할 거룩한 것이 비어있으면 반드시 악한 사탄이 들어와 대신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성전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거룩하게 하라고 당부하시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귀신이 한 사람의 심령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그곳이 싫증나서 더 좋은 곳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맞는 곳이 없어서 처음 있던 곳에 다시 와보니 아주 깨끗하게 청소되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 살게 되므로 그 사람의 상태가 전보다 더 심히 나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거룩한 곳에 사악한 것이 성전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악의 것을 성전에서 쫓아내고 성전에 거룩한 것을 채워 신앙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결석하면 사탄이 대신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충성의 자리를 비우면 사탄은 불충성자를 돕는다는 것도 아셔야합니다. 내가 사랑의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에 미움과 시기와 싸움이 들어온다는 것도 깨달으셔야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한 것을 채우며 충성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2. 성전을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신앙을 잃어버려서 십일조와 첫 열매 드리는 일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일조를 드리지 않아 먹고 살길을 찾아서 성전을 떠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당시의 관리들을 불러 꾸짖고 떠나갔던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성전으로 다시 찾아와 주님의 종인 제사장과 레위인을 존중하고 기쁨으로 첫 열매와 십일조를 드려 성전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놀라운 결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의 헌신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가기 위하여 시장에 가서 닭을 사왔습니다. 닭소리 듣고 깨서 새벽기도에 갈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닭 장수가 잘 운다고 해서 사온 닭이 울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닭 장수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닭 장수가 이 집사님께 묻습니다. “조용한 곳에 집을 잘 지어 주었습니까? 먹이를 제때에 넉넉히 주었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은 모두 다 잘해 주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닭 장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니 아주머니, 조용한 곳에 좋은 집 있겠다, 먹을 것 넉넉하겠다, 뭐가 아쉬워서 목청을 돋우어 울겠습니까?” 하더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신앙상태를 되돌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다가, 먹고 살만하고 자식이 속 썩이지 않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충성하는 일이나 헌신하는 일이 사라지고, 십일조가 아까워서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일이나 물질을 드리는 일이나 몸으로 봉사하는 일은 인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더 크게 사모하는 그러한 억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대신에 작은 어려움에는 감사는 잃어버리고 원망하며 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특히 이렇게 물질만능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십일조와 감사와 충성의 예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느헤미야를 통하여 각성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신앙이 성장했듯이 우리도 그런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교회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주일을 성수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 사람들은 주일성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날 술틀을 밟고 포도주와 다른 것들을 예루살렘에 들여와 팔았습니다. 더 열심히 사람들은 성벽에서 밤을 새우고 주일 이른 아침에 성안으로 들여와 장사를 하며 주일을 범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이런 행동을 금지시키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잡아서 감옥에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가두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의 두려움을 알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주일성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데 필요한 최대의 요소는 주일성수입니다. 성도들이 주일성수를 하는 만큼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일성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야곱의 업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니까 당연히 부흥하고 개개인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서점가에 인기 있는 책 가운데 ‘뺨이 도대체 누구야’(Who is your supporter?) 라는 책을 쓴 다니엘 명(Daniel Myung)이라는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 사업이 망하여 미국으로 이민 와서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대강하다가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 미국 공인 회계사(AICPA)가 되었습니다. 성적이 너무 좋아서 미국의 제일 큰 회계감사 법인 중 서열 1 위에서 4 위까지의 회사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니다. 제일 큰 회사인 아서 앤더슨(Arthur Anderson)이라는 회사에서 최고의 연봉을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 왔는데 알아보니 주일성수를 할 수 없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회사도 알아보니 역시 주일성수를 할 수 없더랍니다. 그런데 서열 6 번째 작은 회사에서는 연봉도 작고 회사도 작는데 주일을 성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택해서 들어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다 이 다니엘 명을 보고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사 집안으로 큰 할아버지가 한국의 총신대학교를 세운 분이였기에 주일성수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머뭇거리기도 없이 결정을 했습니다. 최고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작은 회사 작은 연봉을 계약하고 나올 때 세상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였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일 년 후 1 위 회사는 재무관계로 문 닫고 6 위인 자기 회사가 5 위인 회사와 병합하여 서열 1 위의 회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주일성수하는 젊은이에게 야곱의 복을 주셔서 ‘IBM 컨설팅’ 팀장을 거쳐서 ‘G T 컨설팅’소속으로 미 8 군에서 1 조원(1 trillion) 규모의 예산을 다루는 프로젝트팀의 팀장을 맡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 명은 “나는 주일 성수를 위하여 꼴찌를 택했는데 하나님은 꼴찌를 일등으로 바꾸시더라”라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선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도 부흥하게 될 것이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십시오. 성전을 우리의 믿음과 봉사와 헌신과 물질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주일 성수에 힘쓰셔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부흥시키신 축복을 우리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